

레 지 오 마 리 애

제8차 종합보고서



보고일자 : 2009. 3. 6(금)

- 창설자의 정신으로 시작하자 -

— 창원 성조들의모후 꼬미씨움 소속 —

대방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

차 례

● 연 혁	3
● 조 직 도	5
● 종합보고	6
1. 설립일자	6
2. 보고기간	6
3. 회합일시	6
4. 회합장소	6
5. 조직현황	6
6. 운영 및 관리 현황	8
7. 회 계	8
8. 행 사	9
9. 회의 및 연수	9
10. 교육 및 피정	9
11. 활동내용	10
12. 활동사례	11
● 부록	20
부록 1. 2008년도 평의회 활동실적 평가(자체)	21
부록 2. 2009년도 종합(사업)보고 및 방문 계획	22
부록 3. 2009년도 주일 미사 안내 계획	22
부록 4. 2009년도 한마음의 집 봉사활동 계획	23
부록 5. 평의회 주소록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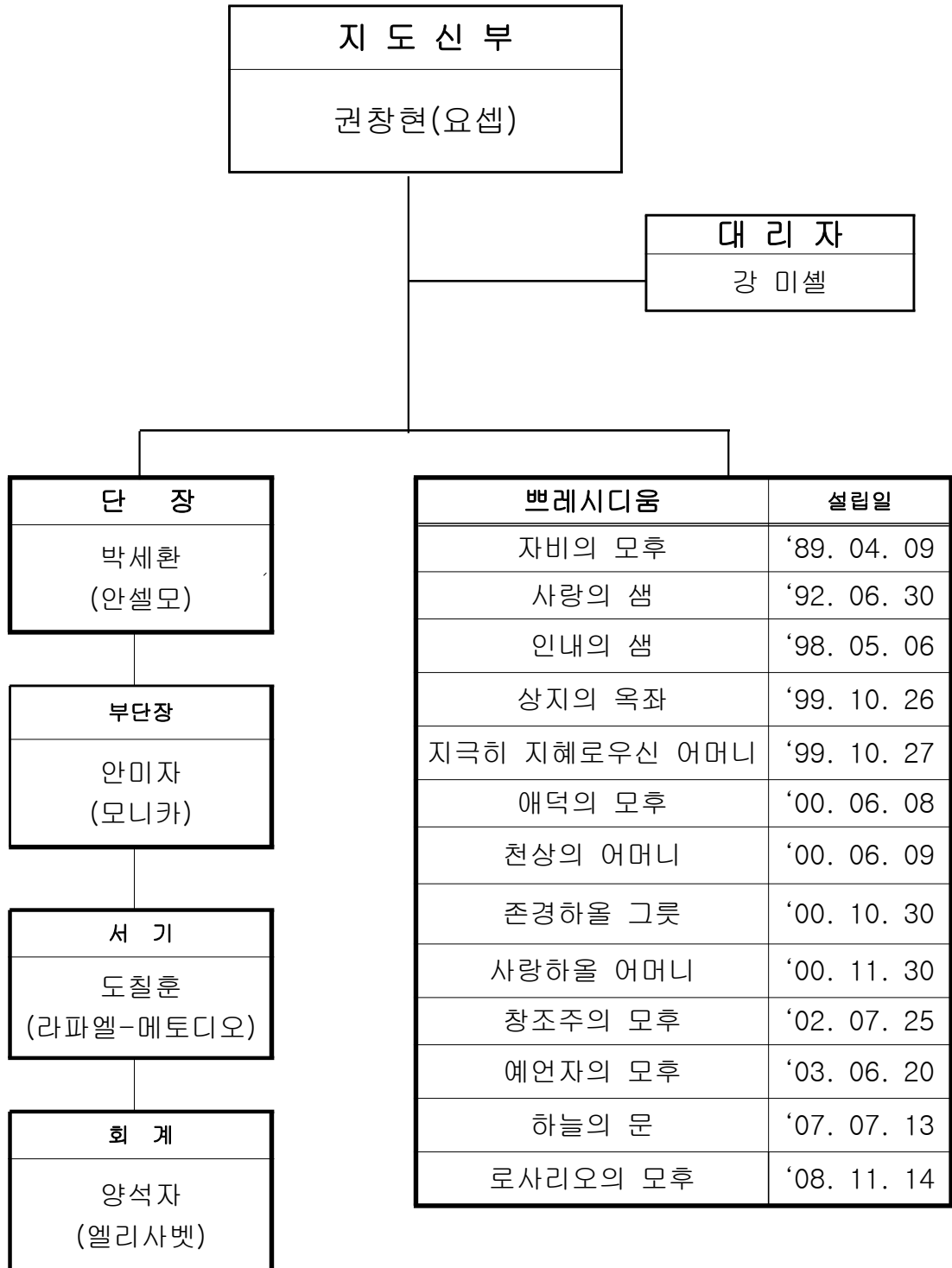
연 혁

- 2001. 4.30. 창원 평화의 모후 꼬미씨움 지시에 의해 설립계획 수립
- 2001. 5. 5. 꾸리아 분리계획(안) 수립
- 2001. 5. 8. ~ 5. 28. 분리계획 공고 및 꾸리아 창단준비 모임(1~4차)
- 2001. 6. 2. 평의회 설립 승인 및 간부 인준(창원 평화의 모후 꼬미씨움)
 - ▶ 평의회 호도 : 대방동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
 - ▶ 꾸리아 간부 :
영적지도신부 노영환(마티아) 대리자 장(레오니아) 수녀
단장 김완수(토마스 아퀴나스) 부단장 박충란(소피아)
서기 김영수(스테파노) 회계 임명수(아네스)
 - ▶ 평의회 개최 및 장소 : 매월 넷째 금요일(19:30), 대방동 성당 지하강당
 - ▶ Pr.구성 : 총 13개 Pr. (행동단원 115명, 협조단원 51명)
성인 105명(남 34, 여 71), 청소년(여) 10명, 협조(남 5, 여 46)
※ 남성 Pr.(3팀), 여성 Pr.(7팀), 혼성 Pr.(2팀), 소년 Pr.(1팀)
- 2001. 6.22. 창단식 및 제1차 평의회(대방동 성당 지하강당)
- 2001. 11. 4. 2001년도 연차 - 친목회 (대방 중학교)
- 2001. 11.30. Pr.대항 연도 대회(대방동 성당 지하강당)
- 2002. 3.24. 2002년도 아치에스 행사(대방동 성당)
- 2002. 7.26. 3개 뵤레시디움 증설 (계약의 궤 Pr., 정의의 거울 Pr., 창조주의 모후 Pr.)
- 2002. 10.20. 2002년도 연차 총 친목회(대방 중학교)
- 2002. 12. 8. 뵤레시디움 간부 직책교육(대방동 성당)
- 2003. 1.13. 교구 인사발령에 따라 영적지도신부
조명래(안드레아)신부님 부임
- 2003. 1.24. 제2대 꾸리아 회계 선임 : 김미혜(마리나)
- 2003. 6.20. 2개 뵤레시디움 증설(예언자의 모후, 순교자의 모후)
총 17개 Pr.
- 2003. 10.24. 제2대 꾸리아 서기 선임 : 원희상(안드레아)
- 2003. 11.19. 대방 제3 Cu.분단 6개 Pr. 전출(가정의 모후, 신비로운 장미, 계약의 궤, 정의의 거울, 순교자의 모후, 천주의 성모, 신비로운 그릇)
1개 Pr. 전입 (대방1Cu. 소속 사랑하올 어머니 Pr.)

총 11개 Pr.

- 2004. 3.24. 2004년도 아치에스 행사(대방동 성당)
- 2004. 5.26. 2004년도 연차총친목회(창원실내 체육관 레지오도입 50주년)
창원실내 체육관
- 2004. 7.10. 제2대 꾸리아 단장 선임 (허성철 요셉)
- 2004. 8. 8. 제2대 꾸리아 부단장 선임 (권정숙 요안나)
- 2005. 5.15. 대리자 (지도수녀 한 리베라타)
- 2005. 5.20. 2005년도 아치에스행사(대방동성당)
- 2005. 6.29. 제3대 지도신부 (노중래 비오)
- 2005. 12.11. 2005년도 연차 총친목회 (전주 치명자산)
- 2006. 1.11. 제4대 지도신부 (김형렬 요셉)
- 2006. 2.17. 제3대 꾸리아 회계 선임 (양석자 엘리사벳)
- 2006. 3.12. 2006년도 아치에스 행사(대방동 성당)
- 2006. 3.19. 레지오 단원 성화 축제 (KBS 창원홀)
- 2006. 9.19. 레지오 50년사(마산교구)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 2006. 9.25. 성체현양대회 (창원 실내 체육관)
- 2006. 10.24. 제3대 꾸리아 서기 선임 (도칠훈 라파엘 메토디오)
- 2006. 11.12. 연차총친목회(대구 한티순교성지 및 왜관 이선이 엘리사벳 묘역)
- 2007. 1. 12. 제4대 영적지도신부 부임 (권창현 요셉)
- 2007. 3. 25. 2007년도 아치에스 행사(대방동 성당)
- 2007. 4. 20. 제3대 꾸리아 단장 선임 (박세환 안셀모)
- 2007. 5. 20. 레지오의 날 행사 (창원 대암고 실내체육관)
- 2007. 6. 15. 제3대 꾸리아 부단장 선임 (안미자 모니카)
- 2007. 7. 13. 하늘의 문 Pr. 설립 (단장 조영실 율리아) 총 12개 Pr.
- 2008. 3. 7. 제7차 종합보고
- 2008. 3. 16. 2008년도 아치에스 행사(대방동 성당)
- 2008.11. 16. 2008년도 연차총친목회 (대암고 강당)
- 2008.11. 14. 로사리오의 모후 Pr. 설립 (단장 임갑주 알비나) 총 13개 Pr.
- 2009. 3. 6. 제8차 종합보고

조 직 도



대방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 평의회 제8차 (2008년도) 종합보고

1. 설립일자 : 2001. 5. 30 (승인일 : 2001. 6. 2)
2. 보고기간 : 2008. 1 (제80차) ~ 2008. 12 (제91차) 12차분
3. 회합일시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20시 10분
4. 회합장소 : 천주교 마산교구 대방동 성당 지하강당
5. 조직현황

가. 간부 구성

구 분	담당사제	단 장	부단장	서 기	회 계
성 명	권창현	박세환	안미자	도칠훈	양석자
세례명	요셉	안셀모	모니카	라파엘메토디오	엘리사벳
상급 평의회 출석률		66.7%	83.3%	88.9%	83.3%

나. 조직 구성

구 분		설립 당시			전차 보고시			현 재			증 감		
꾸리아 수	성인	1			1			1			0		
	소년	0			0			0			0		
쁘레시디움 수	성인	12			12			13			1		
	소년	1			0			0			0		
행 동 단 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4	81	115	28	69	97	34	69	103	6	0	+6
쁘레토리움 단원		0			0			0			0		
협 조 단 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	46	51	16	51	67	16	57	73	0	6	+6
아듀토리움 단원		0			0			0			0		

다. 소속 브레시디움 현황

호도명 (설립일)	조직특성	단원수		회합 일시/장소	간부	
		행동	협조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자비의 모후 (89.4.9)	여성 (30~50대)	9	5	수 10:40/지5	오인숙(엘레사벳) 배정희(도미질라)	한순옥(소화데레사) 곽오례(살로메)
사랑의 샘 (92.6.30)	여성 (40~50대)	12	8	목 20:10/지4	이갑년(소화데레사) 이정미(플로라)	정미화(마리아막달레나) 민미영(로사)
인내의 샘 (98.5.6)	여성 (40~60대)	8	7	금 10:40/지1	안미자(모니카) 신명숙(엘리사벳)	김은자(데레사) 송명란(프란치스카)
상지의 옥좌 (99.10.26)	남성 (30~50대)	11	0	수 20:10/지3	김완규(요셉) 도철훈(라파엘메토디오)	유재석(미카엘) 임종선(요셉)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99.10.27)	여성 (30~60대)	7	8	수 10:40/옥2	김혜리(헬레나) 김영옥(요안나)	김옥희(루시아) 황윤희(소피아)
애덕의 모후 (00.6.8)	여성 (30~50대)	5	13	목 20:10/지1	이광연(데레사) 정태영(모니카)	허미숙(아셀라) 이경혜(마리나)
천상의 어머니 (00.6.9)	여성 (40~60대)	7	7	수 10:40/지3	백연옥(데레사) 박유선(소피아)	오한숙(실비아) 곽선(헬레나)
존경하올 그릇 (00.10.30)	남성 (30~50대)	8	2	화 20:10/옥2	윤영규(미카엘) 이성춘(야고보)	노인학(가롤로) 채도기(레오나르도)
사랑하올 어머니 (00.11.30)	여성 (30~50대)	7	7	금 10:40/옥1	홍경둘(루시아) 김정은(로사)	임정아(베르타) 윤인선(레지나)
창조주의 모후 (02.7.25)	남성 (30~50대)	10	2	수 20:10/유아방	심일철(바울리노) 김태욱(베드로)	김대형(베네딕도) -
예언자의 모후 (03.6.20)	남성 (40~60대)	5	4	화 20:10/지1	전석만(베드로) 박진출(미카엘)	장종권(스테파노) 박진출(미카엘)
하늘의 문 (07.7.13)	여성 (30~50대)	7	6	수 10:40/지2	조영실(율리아) 박지영(안젤라)	배은숙(릴리안) 변은숙(크리스티나)
로사리오의 모후 (08.11.14)	여성 (30~50대)	7	4	금 10:40/옥3	임갑주(알비나) 황소영(레아)	강리경(안젤리나) 김미경(요수아)
(계)		103	73			

6. 운영 및 관리현황

가. 출 석 률 : 전체 78 %, 간부 98 %, 의원 77 %

나. 통신교환 : 수신 199건 발신 54건

다. 순 방 : 14 회

○ 꾸리아 순방 1 회 / 1 개 꾸리아

○ 브레시디움 순방 13 회 / 소속 13개 Pr.

7. 회계 보고

(단위 원)

수입			지출			
적요		금액	적요		금액	
전기이월금		466,769	이월금	꼬미씨움 의연금	3,200,000	
의 연 금		4,535,700		수수료	6,000	
예금이자		0		소 계		3,206,000
소 계		5,002,469	교육비	평의회 간부 심포지움		
상도평의회	꼬미씨움 순방 격려금	0		레지오 단원 교육		
	소 계			0	레지오기사교육	
				새단원교육비		
				꾸리아단원간식	199,730	
				소 계		199,730
사도들의 모후꾸리아소속 Pr.의 연금	자비의모후	367,000	행사비	연차총친목회	0	
	사랑의 샘	272,000		군종회비	0	
	인내의 샘	605,000		교도소 방문	0	
	상지의 옥좌	458,500		성모의 밤	0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376,000		선교비	0	
	애덕의 모후	384,000		소 계		0
	천상의 어머니	368,500	관리 및 운영비	회의록,출석부,명패	0	
	존경하올 그릇	296,000		순방격려금	240,000	
	사랑하올 어머니	270,700		종합보고격려금	412,000	
	창조주의 모후	482,000		제대꽃, 제대보, 세탁비	0	
	예언자의 모후	308,000		1000차 주회 격려금	100,000	
	하늘의 문	348,000		성모상, 백실리움, 촛대구입	0	
	로사리오의 모후	0		레지오 꽃 구입	344,200	
				제7차종합보고서인쇄비	117,200	
				창단 축하금 (로사리오의 모후)	50,000	
				소 계		1,263,400
	소 계		4,535,700	총 지출 합계		4,669,130
	합 계		5,002,469	이월금(현잔액)		333,339
합 계				5,002,469		

8. 행 사

구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레지오 관련 행사	아치에스	3. 16	대방동 성당	75명
	야외 행사	5~7월	Pr.별 개최	91명
	연차총친목회	11. 16	대암고 체육관	79명
기타 행사	성모의 밤	5. 20	대방동 성당	65명
	본당의 날 및 체육대회	10. 12	창원기능대 강당	90명

9. 회의 및 연수

구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	평의회 간부 회의	수시	대방동 성당	평의회 간부
연수	영성 봉쇄 피정	5. 24	연화리 피정의 집	1명
	담당수녀 연수회	5. 20	창원 젊음의 집	1명

10. 교육 및 피정

가. 상급평의회 교육(레지아 주관)

교 육 명 칭	일 시	장 소	대 상	참석인원
1단계(21기) 기사교육	4. 19-20	성산종합복지관	레지오 단원	0명
2단계(3기) 기사교육	2. 23-24	의령 엠마오의 집	레지오 단원	1명
교구 Co. 및 Cu.간부 심포지엄	11. 29-30	가톨릭 교육관	꾸리아 간부	2명
레지오 특강	9.	대방동 성당	레지오 단원	72명

나. 자체 교육(꼬미시움 및 꾸리아 주관)

교 육 명 칭	일 시	장 소	대 상	참석인원
선교 특강	11. 19	대방동 성당	Pr.간부/단원	54명
대림특강	12.	대방동 성당	Pr.간부/단원	58명
특별강연 (신달자 시인)	9. 4	대방동 성당	Pr.간부/단원	86명

11. 활동내용

항 목	세 목	활동횟수		내 용	결 과
		대상	횟수		
입 교 권 면	비신자 권면	138	487	이웃, 친지, 직장동료 대상	교리반 인도 65 명
	개종 권면	13	114	개신교, 불교	교리반 인도 3 명
	예비 중단자 권면	6	55	가정방문, 통신교리 안내 등	교리반재인도 1 명
예비자 돌 봄	교리반 인도(직접인도)	70	584	교리지도, 미사안내, 친교	세례자 36 명
	타인이 인도한 예비신자	25	89	타인이 인도한 예비신자 돌봄	세례자 7 명
	통신교리자	1	45	주일미사안내	세례자 1 명
	교리반 협조		71	교리교사, 차봉사, 교리반 동행	대부모서기 명
교 우 돌 봄	새신자 방문 돌봄	50	185	방문기도, 단체가입권유, 미사동행	단체가입 3 명
	교우가정 방문	88	1150	영적대화, 단체가입권유	단체가입 21 명
	쉬는 교우 방문 지도	159	467	회두권면, 교적정리	회두 29 명
	혼인장애자 해소 권면	4	31	혼인장애 원인조사 설득	해소 4 명
	판공 성사 권면	162	281	성사권유	성사 88 명
	전입 교우 방문	14	128	교적정리, 방문기도	단체가입 4 명
	견진 성사 권면	115	952	단원 및 신영세자	견진 68 명
	유아 세례 권면	32	159	반기도회시 권유 (첫영성체 13명)	유아 세례 24 명
어려움 겪 는 본 돌 봄	교우 상가 방문 및 돌봄	149	392	연도, 장례미사, 장지봉사	연도 186 회 미사 128 명 장지 29 명
	비신자 상가 방문 및 돌봄	137	195	봉사, 위로	
	교우환자 방문 및 돌봄	101	324	기도, 위로	병자성사 6 명 병자영성체 2 명
	비신자 환자 방문 및 돌봄	110	175	방문, 돌봄, 위로	
	이재 및 빈곤자 돌봄	2	61	장애인돌보기,목욕봉사,도시락배달	병자성사 명
	병원 봉사		185	파티마병원, 창원병원	병자 영성체 명
	복지 시설 방문	19	623	성심원, 복지관, 공부방	
레 지 오 확 장	소년 Pr. 지도				
	행동 단원 모집	100	290	신영세자,전입자, 입단권유	입단 28 명
	협조단원 모집 및 돌봄	60	574	신영세자, 탈단자 등 (돌봄 264회)	입단 19 명
	레지오를 위한 활동		1765	행사협조, 월례보고서, 순방	
본 당 협 조	성경쓰기		834	성경쓰기	
	소공동체 협조(반모임)		1053	소공동체 주관 및 참석권유	
	행사준비 및 협조		2048	행사 준비 및 협조	
	주일학교 돌봄		426	자모회 봉사 사준비	면 담 : 세대
	호구조사		123	교적 정리 전화 연락	세대
	기타		1380	단체협조 청소 미사안내 차봉사	
기 타	출판물보급 활동		267	주보, 서적, 선교책자 전달	
	자연보호 활동		239	분리수거, 쓰레기 수거	
	봉사 활동		2405	차량봉사, 아이 돌봄, 바자회 등	

12. 활동사례

입교 권면

◆ 비신자 권면(1)

취미생활을 하게 된 곳에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웃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있어 같이 카풀을 하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당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 자매님은 자기도 성당이 가까이에 있어 관심이 갔었다면서 성당에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쉽게 예비자를 인도하게 되다니...’ 너무 기뻐지만 마음을 가다듬어 예비자 교리반에 대해 설명해주며 알아 봐주겠다고 하였다.

교리반은 시작된 지가 2개월이 지나 다음 교리반 시작 때 까지 기다려야 했다. 다음 교리반 개강하려면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정성을 쏟아 다음 교리반에 입교시킬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내게 내린 숙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면서 집으로 왕래도 하고 점심식사도 같이 하며 친분을 쌓으며 지내던 중 그 자매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 기다리던 임신이라 축하를 하였지만 내심 걱정도 되었다. 입덧때문에 취미생활은 당분간 쉬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교리반 개강이 다가와 망설임 끝에 얘기를 했더니, 아기를 낳고나면 시간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 임신했을때 교리를 받는것이 좋겠다고 하여 교리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6개월간 만삭의 몸으로 개근으로 교리를 맞쳤으며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져 동료예비자들보다 몇일 앞당겨 영세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3월에 시작하는 첫영성체 교리에는 큰아이도 교리를 받기로 하였다. 우리주위에는 가상의 신앙인이 될 사람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다. 내 신앙을 내세워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전교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나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며 가슴 뿌듯하다.

자비의 모후 Pr.

◆ 비신자 권면(2)

하느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활동을 하면서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 우리pr의 외딴 교우들 중에서 남편을 입교 권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pr에서는 부부모임을 통하여 입교 권면을 시도하였다. 그간 우리pr에서는 연 2~3회의 부부모임을 가짐으로써 많이 친숙해 질 수 있었고, 농담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발전 되었다. 그 결과 자매님의 남편에게 집으로 방문하겠다는 대화로부터 집으로 초대된 부부도 있었다. 마침내 두 자매님의 열정적인 노력과 우리pr 단원들의 열심한 기도로 두 자매님의 남편을 입교 권면 시켰다. 앞으로 두 형제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심생활의 뿌리가 내리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사랑의 샘 Pr.

◆ 비신자 권면(3)

친척 중에 직장에도 착실히 다니며 매사에 모범적인 40대 중반의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우리 부부가 천주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만날 때마다 그 형제님과 함께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자 교리 입교가 있어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착실히 교리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견진성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처와 딸까지 영세를 받게되었습니다. 시일은 좀걸렸지만 한꺼번에 3명의 신자가 탄생되었으니 큰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 형제님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착실히하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언자의 모후 Pr.

◆ 비신자 권면(4)

4개월전에 돌아가신 재종(6촌) 형님은 고생을 하면서 열심이 일하여 자수성가 하셨고, 성격이 온순하며 예능과 악기를 특히 잘 다루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형수님과 동시에 영세를 받았으나, 형님만은 냉담을 하고 있던 중에 뜻하지 않게 인간으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한부 생명을 살면서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천안에서 서울로 갈 정도로 하루 하루를 아쉽게 살다가 결국 그때에 배운 그림을 형수님께 선물하고 이 세상을 하직 하셨으며, 나이는 겨우 56세이었습니다. 돌아가시자 성당의 형제 교우님들께서 연도도 해주시고 참배객들을 위해서 교우들께서 음식봉사도 해주셨으며, 성당에서 신부님 집전으로 엄숙하게 진행한 장례미사와 연령회에서 진행한 하관 예식을 지켜보신 후 평소에 미신과 샤머니즘을 믿고 계시던 75세 되신 저의 숙모님과 저의 조카 (형님의아들)는 천주교 대전교구의 성환 성당에서 2개월째 교리교육을 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서 느낀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당생활을 충실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모시는 새로운 교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창조주의 모후 Pr.

◆ 비신자 권면(5)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며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애들은 둘 다 영세를 시켰고 남편은 외인이었지만 부인이 하는 성당 일에는 그 동안 별 반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형제님을 성당에 초대하고 싶었고, 자매님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하면서 함께 다니는 부부를 보면 너무 부럽다고 했다. 자매님에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단원들도 함께 기도 드렸다. 성당에서 일본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외인인 남편과 함께 가고 싶다고 가정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고마워서 허락했다 하였다. 2박 3일의 여정 속에서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례의 길에서 많은 느낌을 주고받았다. 그 후 외딴 교우 교리반에 나오셨고 영세를 받으셨다. 그 자매님은 남편을 적극적으로 권면한 적이 없었다 하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형제님을 교회로 안내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형제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하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상의 어머니 Pr.

◆ 비신자 권면(6)

제 이웃 상가에 배달업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중 특히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당에 대하여 물어 보곤 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닌데 왜 성당에 가느냐?”, “오늘은 어떤 날이기에 성당에 다녀오는 것이냐?”는 등 우리 천주교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그의 물음에 솔직히 대답을 해주는 동안 꽤나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성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당에 함께 가보자는 제안에는 선뜻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편안한 대화를 위하여 입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성당과 신앙생활에 대한 그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기를 1년 남짓, 문득 “이제 실제로 성당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겠습니까?”하고 말하였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님이 교리반에 입교를 한 것은 그 후로도 1년이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그가 교리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형제님을 위하여 배달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수시로 교리반과 미사에 함께 참석하면서 그가 성당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교리반에 개근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석하여 드디어 지난봄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게운영 중에도 주일 미사는 빠짐없이 봉헌하는 어엿한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올 그릇 Pr.

◆ 비신자 권면(7)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느끼던 차에 같은 아파트에 사셨던 자매님이 성당에 한 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받아 교리반에 입교하였고, 약 6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며 늘 세례 받을 때의 순수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었습니다. 한 해 두해 지나면서 성당의 많은 분들도 알게 되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면서 가톨릭 신자로서의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톨릭 신자로서 봉사활동, 주일미사 참여, 교우들과의 친교 활동 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느낌은 지울 수 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허감은 올 봄 두 번 째 화해와 쇄신 연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주님과 대화시간을 늘리면서 차츰 씩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레지오 활동과 더불어 단원들과의 만남이 즐거웠고, 기도 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복음전파의 사명이 평신도로서 최고의 사명임을 귀가 닳도록 듣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성당에 함께 가자고 감히 권유할 수 없는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신부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인도하여 성당에 데리고 오라고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 두려웠으나 “화해와 쇄신” 연수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매일 기도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 주님께서 다 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주위 지인들에게 과감히 다가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면서도 선뜻 성당에 가자고 권유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기도와 더불어 권유를 하게 되어 현재 세 명의 예비신자가 나란히 교리공부도 하고, 주일미사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

람들이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Pr.

개종권면

◆ 개종 권면(1)

입교대상자를 찾던 중에 레지오 회합 후 자주 가는 음식점 자매님이 개신교에 다니다 쉬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레지오 단원은 그 자매님을 입교 대상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권면을 시작하였다.

매주 레지오 회합을 마치면 주로 2차 주회는 그 자매님 가게에서 하기로 하고 활동 하던 중 자매님께서 반응이 오기 시작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권면을 위하여 자매님들의 뵤레시디움을 통하여 입교권면을 유도하여 그 대상의 자매님은 현재 교리반에 나오고 계신다.

레지오 주회합 활동 중에 얻은 성과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리반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또한 레지오 단원으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상지의 옥좌 Pr.

◆ 개종 권면(2)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성당을 방문하였다. 두고 온 것을 가지러 성당에 갔을 때 마침 그 자매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한번 성당이 어떤 곳 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는 자매님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고 웃음을 잃은 얼굴이었다. 나를 먼저 소개 했더니 자매님은 길상 사절에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절실한 불교신자라며 집안에 웃음이 없어진지 옛날 얘기며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는 그의 얼굴에선 삶의 의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입교 권면을 권했지만 생각해 보겠다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돌아갔다. 그 후 서로 문자만 보내다 연락이 끊어져 버렸고. 가게에 찾아갔더니 가게 문도 접고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성당을 찾은 자매님을 또 보게 되었는데 그때와 얼굴 표정은 다를 바 없었다. 다른 일을 시작했다며 얘기를 꺼내는 자매님에게 입교권면을 권했고, 며칠 있으면 예비자 환영식이 있음을 얘기 하고 자기소개서 한 장을 써 달라고 했다. 성경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 보고 싶다고 해서 사무실로 안내해서 사는 걸 도와드렸다.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성경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돌아갔다. 환영식 날 생각해보겠다던 자매님이 참석하였고, 그 후 자매님은 예비자로서 매일미사도 빠지는 법이 없었고 특강까지 참석하는 열성적인 모습이였다. 성경 읽는 것이 좋다며, 세례를 받고 맨 처음 등록한 곳이 성경 공부 반이였다. 그리고 지금은 레지오에 입단해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은 자매님을 보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았고, 자매님은 개종이후 너무 많은 은총을 받고 있어 행복하다며 감사 미사를 드리는 자매님의 모습에서 사람의 표정이 저렇게 달라 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이다. 선교특강 중 신부님의 말씀처럼 “선교란 한사람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 이라고 하셨듯이 웃음을 되찾은 자매님의 환한 얼굴에서 나 또한 보람이 컸던 입교권면 이였다.

애덕의 모후 Pr.

회두권면

◆ 회두 권면(1)

직장일로 알게 된 자매님이 있었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린 시절에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뒤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세례명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장님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세례받은 성당과 세례명을 알려 주었고 교적도 찾아 주었습니다. 그 뒤 예비자 교리 때 교리공부도 몇 개월 동안 받았으며, 지금은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자매님이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의 샘 Pr.

◆ 회두 권면(2)

대방초등학교 재직 시, 한 제자의 어머니를 헬스클럽에서 만났으나 성당 교우인줄을 몰랐다. 그래서 입교 권면을 하기위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랬더니 자기도 천주교 신자라고 했다. 무척 반가워서 어느 본당에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가음정 본당에서 레지오 활동까지 했는데, 몇 년째 쉬고 있다고 했다.

이때부터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헬스클럽에서 일주일에 3~4차례는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날 때 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 이었던 딸은 첫 영성체 교리를 들던 중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생겨 영세를 못하고 중학생이 된 후 하기로 미루었다.

지금은 이 자매님의 가족이 본당에 열심히 나오고 있다. 이번 화해와 채신을 권유했으나 이때 온 가족 행사가 서울에 있어서 참석 못한다고 했다.

올 해 중1이 된 딸은 교리를 받아 영세를 할 것으로 믿으며 이 덕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내리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사랑의 샘 Pr.

◆ 회두 권면(3)

반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리 동네 쉬는 교우 한 가족이 있는데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데, 앞으로 회두권면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깜빡 잊고 며칠 뒤 저녁에 찾아갔더니 당분간 시간이 없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말에는 애를 데리고 축구 시합에 따라가야 된다는 시간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가끔씩 찾아 갈 때 대방주보와 카톨릭 마산주보를 보여 주고 얘기를 하곤 돌아왔다. 찾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였다. 애들은 부모님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나가기 싫다고 하였고, 아이들의 생각을 잘 알고는 있지만 행사도 많고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커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매님에게 주일만이라도 지키자고 하였고 나머지는 하나씩 한번 해보자고 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등 뒤에 한 가족이 나란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씨-익 웃으며 어색해 했지만 그 모습 보기 좋았고, 천천히 한발 내딛은 발걸음이 앞으로 열심히 뛰는 발걸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할 것이다.

애덕의 모후 Pr.

◆ 회두 권면(4)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고지내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언젠

지 전화하면 어릴 적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20대에 영세를 받아 천주교 신앙을 가진 이로 가끔 성당활동으로 바쁘다는 사실을 접할 때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워낙 여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다보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지쳐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냉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냉담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를 자주 만났습니다. 친구의 얘기도 들어 주고, 같이 미사도 보고, 같이 강의도 들으러 가고, 또 수도원도 몇 번 찾아가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냉담을 풀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마지막 고해가 되지 않아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낸 어느 날 하느님의 때가 익었나 봅니다. 저희는 함께 성당에 가서 고백성사를 보고 미사참례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여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보람된 활동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 Pr.

◆ 회두 권면(5)

전에 살던 아파트 이웃에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소공동체모임에도 적극적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도 열심히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군 입대 후 어느 날 부터 그 부부는 성당에서 볼 수 가 없었고 소공동체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 어쩌다가 주일 미사에 한번 빠지다 보니 계속 못나가게 되었다면서 곧 다시 성당에 나오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냉담 중이어서 전화방문과 가정방문을 하며 기도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른 구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등 꾸준히 교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자매님이 다시 성당에 나오게 되어 제게 뿌듯한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냉담중인 형제님을 위해서도 주님께 기도드리며 더욱 열심히 권면해 보겠습니다.

존경하올 그릇 Pr.

레지오 확장

◆ 행동단원 모집(1)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자매님이 레지오 활동을 그만 둔지 몇 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주에 한번씩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츰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행동단원을 모집하다 보면 처음 입단하는 사람보다 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단원의 권유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여건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을 때를 자기 자신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느님만이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권유로만이 아니라 주변의 자매님들이 많은 권유를 해 주셔서 그 도움으로 자매님은 입단하였고, 충실한 레지오 단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내의 샘 Pr.

◆ 행동단원 모집(2)

같은 구역에 살면서 판공성사는 보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매가 있었는데 레지오 입단을 권유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신부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가정방문이 있어 권유 하였더니 가정방문은 받겠다고 허락을 하였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신부님께 그 자매님의 상황을 말씀드려 레지오 입단을 권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신부님의 권유로 레지오 입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레지오에 입단하여 복지관 봉사과 레지오의 활동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모후 Pr.

◆ 행동단원 모집(3)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 레지오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지만, 늘 선교 등 레지오 활동을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래업체 사람에 대한 입교권면을 통하여 지난해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며, 세례 후 곧 레지오 활동 단원으로의 입단을 권면하여 입단하였으며, 현재는 뽀레시디움 단원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례 후에도 그 분과 레지오 활동을 하였으면 하고 늘 기도하였는데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늘 단원으로서 함께 활동하여 주셨으면 하는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아멘!

상지의 옥좌 Pr.

◆ 행동단원 모집(4)

함께 레지오 활동을 하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다른 여성 Pr 옮겨가고나서 그 자매님의 형제분이 레지오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께 부탁하여 형제님을 레지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여러차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을 만나면 수시로 입단 권유도 하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레지오 회합이 있는날 연락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개월 드디어 형제님께서 레지오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래에 출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여 올바른 레지오 단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모후 Pr.

◆ 행동단원 모집(5)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늘 감싸는 아름다운 이들 부부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9월, 예비교리자 교리공부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들 부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가 뵐 수 있다는 기쁨으로 6개월간의 교리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7년 3월 이들 부부와 함께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세를 받았고, 올해 2월에는 견진성사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외짝 교우인 저로서는 이들 부부가 더할 나위 없이 부럽고, 이분들처럼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꿈꾸기도 한 저에게 이들 부부는 저의 신앙생활의 표본이자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 여름에는 이분들과 화해와 채신 연수회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정말 뜻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때에 형제님의 어머니께서 별세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의 같은 시기에 별세하신 저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께서 영세 받으신 후, 곧바로 레지오에 입단하여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고 계시지만, 형제님께서 회사일

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입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브레시디움 단장님과 단원들은 지속적으로 이 형제님께 입단을 권유하였고, 비록 매주 회합에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창조주의 모임’에 입단하여 지금은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의 모후 Pr.

◆ 행동단원 모집(6)

레지오 활동을 시작한지 약 일 년 남짓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히 누군가에게 입단권유가 꺼려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구역을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동네 차례로 좋은 사람들이 이사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두 분 이었는데, 모두 외국에서 몇 년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던 신자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하기 전에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해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단장님과 함께 세대를 방문하면서 그것이 기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마음이 열려 있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면서 앉아서 이리저리 재어보는 것은 하느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 봅니다. 그 후 그 두 자매님들은 저희 레지오단원이 되어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 누군가는 항상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 입교권면과 레지오 활동으로 연결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모님의 은총 안에 레지오 활동을 열심히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Pr.

◆ 행동단원 모집(7)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절. 절친한 친구의 권유로 교리반에 등록하게 되었고, 작년 12월 세례를 받아, 레지오활동까지 하게 된 지 7개월이 되어갑니다. 처음에 레지오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할 때 교리를 함께 했던 자매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세례를 받은 후 미사 참석조차 하지 않고 하느님과 많이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간 주일마다 전화를 해서 주일미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미사를 볼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오에 입단하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한사람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어서 저 또한 신앙인이 되어감이 뿌듯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의외로 미사조차 하지 않고 하느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면 하느님의 축복속에 함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혼자 미사참석이 어려운 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쉬는 교우들을 찾아보려 갈까요?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본당 협조

◆ 주일학교 돌봄(1)

[첫영성체부모교육]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신앙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친하게 지내던 자매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예비자 교리에 입교하였습니다.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 하느님 곁에 있을 때, 하느님의 사랑으로 얽혀있던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

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잘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엄마의 걱정을 뒤로하고 아이는 성당에 가서 하느님의 사랑과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일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성경쓰기를 하고, 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는 자신의 모습에 아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매주 부모교리를 받으면서 부모로서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채워 나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타해 질 때면 레지오단원들의 따뜻한 독려와 보살핌이 뒤따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애쓰신 신부님, 수녀님, 교리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요일이면 성당을 향해 동생과 나란히 힘차게 발걸음하는 아이에게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기 타

◆ 봉사활동(1)

단원들이 이사를 하고 레지오를 그만 둔 단원들이 여럿 있어 팀에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으나 할머니들이 주시는 에너지로 인하여 항상 즐겁게 레지오를 하고 있다. 저희 레지오의 특징은 50-70대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머니들께서 젊은 분 못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하시며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실 정도로 정열이 넘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심을 알기에 거의 매일 미사를 보시고 묵주기도의 기도는 너무 많으시고 파티마 병원 봉사와 복지관 봉사를 규칙적으로 하십니다. 외인권면에도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가정봉사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진정한 성모님의 자랑스러운 역군이십니다. 저희들도 할머니처럼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속에서 여생을 항상 기쁘게 사시길 우리 모두는 기도드립니다.

천상의 어머니 Pr.

부 록

2008 활동실적 평가 및 2009 계획

부록 1. 2008년도 평의회 활동실적 평가(자체)

부록 2. 2009년도 종합(사업)보고 및 방문 활동

부록 3. 2009년도 주일 미사 안내

부록 4. 2009년도 한마음의 집 봉사 활동

부록 5. 평의회 간부 주소록

부록 1. 2008년도 평의회 활동실적 평가(자체)

활동 및 평가

	행 사 명	대상인원	참석인원	참석률	평가 및 반성
행 사	연차총친목회	100	79	79%	-야외행사 참여율은 높으나, 연차총친목회 등 참여율이 낮음 (홍보 확대 및 참가 독려 필요)
	대림특강	103	58	56%	
	아치에스	99	75	76%	
	성모의 밤	100	65	65%	
	야외행사	100	91	91%	
교 육	교육명	대상인원	참석인원	참석률	-교육 참석율이 71% 이하임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독려 및 선도가 필요함
	레지오교육(선교특강)	100	49	49%	
	레지오교육(특강)	101	72	71%	
	간부영성피정	4	1	25%	
	간부 직책 교육	56	-	-	
활 동	항목	목표	결과	달성률	-영세율은 100%를 초과다성하였으나, 냉담자 회두율 및 레지오 입단율에서 목표 달성이 미흡함 -선교 및 냉담자 회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선교 (영세)	36명	44명	122%	
	냉담자 회두	36명	29명	81%	
	레지오 입단	36명	28명	78%	
	사랑실천	-	4,599	-	
	본당협조	-	6,131	-	
관 리 · 인 영	출석률 높이기	-쁘레시디움에 따라 출석 및 활동의 차이가 있음 -단원에 대한 주회 참석의 중요성 강조가 필요함 -상급평의회 출석율도 저조 (출석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 -직장 및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유연한 배려도 동시에 필요함			
	행사 참여율 높이기	-단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이나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의 지속적 향상이 필요함			
	순방 활성화	-순방이 뿌레시디움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순방 내용을 평의회 시 간략히 발표할 수 있도록 개선함 -순방과 사업보고를 같은 시기에 시행하도록 조정함 -순방자가 사업보고의 논평자가 되도록 개선함			
	조직 강화	-단원의 특징에 맞는 임무 부여 및 활동 촉구가 필요 -단원에 대한 뿌레시디움 소속감의 부여가 필요 -단원 상호간에 격려, 배려, 관심이 필요 -지속적인 단원 배가 활동이 필요			
	단원 관리	-단원 상호간에 친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 -단원의 직장이나 개인적인 환경에도 유연한 이해가 필요			
	문서 관리	-문서함에 의한 뿌레시디움의 문서관리가 필요함. -문서 작성 및 관리요령 교육이 필요함.			
	의연금 납부	-2008년도 주별 1인당 평균 비밀헌금액 - 847원 [전년 대비 46원 감소, 893원(2007년), 873원(2006년)] -비밀헌금에 대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			

부록 2. 2009년도 종합(사업)보고 및 방문 계획

사업보고				Pr. 방문		
차수	월	발표	논평	방문 Pr.	시간장소	방문자
92차	1월	인내의 샘 Pr.	천상의어머니 Pr.	인내의 샘 Pr.	금10:40지하1	천상의어머니 Pr.
93차	2월	자비의 모후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자비의 모후 Pr.	수10:40지하5	로사리오의 모후 Pr.
94차	3월	사도들의 모후 Cu.	-	사도들의 모후 Cu.	2주(금)20:10 지하강당	-
95차	4월	상지의 옥좌 Pr.	예언자의 모후 Pr.	상지의 옥좌 Pr.	수20:10지하3	예언자의 모후 Pr.
96차	5월	사랑의 샘 Pr.	애덕의 모후 Pr.	사랑의 샘 Pr.	금10:40지하4	애덕의 모후 Pr.
97차	6월	예언자의 모후 Pr.	창조주의 모후 Pr.	예언자의 모후 Pr.	화20:10지하1	창조주의 모후 Pr.
98차	7월	애덕의 모후 Pr.	사랑의 샘 Pr.	애덕의 모후 Pr.	수20:10옥상1	사랑의 샘 Pr.
99차	8월	창조주의 모후 Pr.	존경하올 그릇 Pr.	창조주의 모후 Pr.	수10:40지하5	존경하올 그릇 Pr.
		하늘의 문 Pr.	자비의 모후 Pr.	하늘의 문 Pr.	수10:50지하2	자비의 모후 Pr.
100차	9월	천상의 어머니 Pr.	하늘의 문 Pr.	천상의 어머니 Pr.	수10:40지하3	하늘의 문 Pr.
101차	10월	존경하올 그릇 Pr.	상지의 옥좌 Pr.	존경하올 그릇 Pr.	화20:10옥상2	상지의 옥좌 Pr.
102차	11월	사랑하올 어머니 Pr.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사랑하올 어머니 Pr.	금10:40옥상1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103차	12월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인내의 샘 Pr.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수10:40유아실	인내의 샘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사랑하올 어머니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금10:40옥상3	사랑하올 어머니 Pr.

주) 각 뵤레시디움 방문 시 꾸리아 간부가 동행합니다.

부록 3. 2009년도 주일 미사 안내 계획

월/일	담당 뵤레시디움	평의회	월/일	담당 뵤레시디움	평의회
1/4	천주의 성모, 정의의 거울	1 월 2 Cu.	7/5	은총의 샘, 사도들의 모후	7 월 2 Cu.
1/11	순결하신 모후, 신비로운 그릇		7/12	천주의 성모, 정의의 거울	
1/18	매괴의 여왕, 사도들의 모후		7/19	순결하신 모후, 신비로운 그릇	
1/25	가정의 모후, 정의의 거울		7/26	매괴의 여왕, 사도들의 모후	
2/1	상아탑, 천사들의 모후	2 월 Co.직	8/2	바다의 별, 평화의 모후	8 월 Co.직
2/8	황금궁전, 섯별		8/9	모든성인들의모후, 중재자의모후	
2/15	바다의 별, 평화의 모후		8/16	온유하신어머니, 즐거움의샘	
2/22	모든성인들의모후, 중재자의모후		8/23	그리스도의어머니, 겸손하신모후	
3/1	애덕의모후, 상지의 옥좌	3 월 1 Cu.	8/30	상아탑, 천사들의 모후	9 월 1 Cu.
3/8	천상의 어머니, 창조주의 모후		9/6	사랑하올어머니, 존경하올그릇	
3/15	사랑하올어머니, 존경하올그릇		9/13	인내의샘, 예언자의모후	
3/22	인내의 샘, 예언자의모후		9/20	사랑의 샘, 상지의 옥좌	
3/29	사랑의 샘, 상지의 옥좌	4 월 2 Cu.	9/27	자비의모후, 창조주의모후	10 월 2 Cu.
4/5	인자하신 모후, 신비로운 그릇		10/4	가정의모후, 정의의 거울	
4/12	신비로운 장미, 사도들의 모후		10/11	인자하신모후, 신비로운 그릇	
4/19	계약의 궤, 정의의 거울		10/18	신비로운 장미, 사도들의 모후	
4/26	구세주의어머니, 신비로운 그릇	5 월 Co.직	10/25	계약의궤, 정의의 거울	11 월 Co.직
5/3	온유하신어머니, 즐거움의샘		11/1	황금궁전, 섯별	
5/10	그리스도의어머니, 겸손하신모후		11/8	바다의 별, 평화의 모후	
5/17	상아탑, 천사들의 모후		11/15	모든성인들의모후, 중재자의모후	
5/24	황금궁전, 섯별	6 월 1 Cu.	11/22	온유하신어머니, 즐거움의샘	12 월 1 Cu.
5/31	자비의모후, 창조주의모후		11/29	그리스도의어머니, 겸손하신모후	
6/7	지극히 지혜, 존경하올그릇		12/6	지극히 지혜, 존경하올그릇	
6/14	하늘의문, 예언자의모후		12/13	하늘의문, 예언자의모후	
6/21	애덕의모후, 상지의옥좌	12/20	애덕의모후, 상지의옥좌	12/27	천상의어머니, 창조주의모후
6/28	천상의어머니, 창조주의모후		천상의어머니, 창조주의모후		

주) 대축일 미사안내는 평의회 간부 및 각 뵤레시디움 단장이 합니다.

부록 4. 2009년도 한마음의 집 봉사 활동 (T. 299-2471)

2009년 활동 월/일	활 동 담 당 뽀 레 시 디 움		
3/2 (Co.)	바다의 별	셋별, 그리스도의 어머니	겸손하신 모후
3/3 (1Cu.)	-	-	-
3/4 (2Cu.)	천주의 성모	매괴의 여왕	계약의 괴
6/3 (Co.)	천사들의 모후	온유하신 어머니	모든성인들의 모후
6/5 (1Cu.)	로사리오의 모후	사랑하올 어머니	자비의 모후
6/8 (1Cu.)	천상의 어머니	인내의 샘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9/2 (2Cu.)	구세주의 어머니	은총의 샘	매괴의 여왕
9/4 (2Cu.)	순결하신 모후	가정의 모후	신비로운 장미
9/7 (Co.)	바다의 별	셋별, 그리스도의 어머니	겸손하신 모후
12/1 (1Cu.)	하늘의 문	로사리오의 모후	사랑하올 어머니
12/2 (2Cu.)	천주의 성모	매괴의 여왕	계약의 케

주) 각 뽀레시디움별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12명 이상이 참석토록 합니다.

부록 5. 평의회 의원 주소록

호도명 (설립일)	직책	성 명(세례명)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 (‘01.6.2)	단장	박세환(안셀모)	진영코아루@ 402-701	070-8133-5254	010-2885-5254
	부단장	안미자(모니카)	프리빌리지@102-2005	287-0739	010-7700-0739
	서기	도칠훈(라파엘M)	루이젠하우스 102-202	264-7570	010-7203-1305
	회계	양석자(엘리사벳)	프리빌리지@ 105-1704	286-5630	010-9676-7949
자비의 모후 (‘89.4.9)	단장	오인숙(엘리사벳)	대방 동성@ 101동1502호	285-3557	019-539-3550
	부단장	한순옥(소화테레사)	동성@ 102동 1204호	601-7651	010-9611-7651
	서기	배정희(도미질라)	덕산2차@ 201동 603호	261-6220	010-9797-6220
	회계	곽오레(살로메)	대방 그린빌@105-505	275-4840	010-3043-4840
사랑의 샘 (‘92.6.30)	단장	이갑년(소화테레사)	프리빌리지@ 106-501	283-1059	019-583-1059
	부단장	정미화(마리아막달레나)	프리빌리지@ 106-1401	262-9635	011-9316-9635
	서기	이정미(폴로라)	남양동 성원@ 206-806	283-0865	010-7900-0865
	회계	민미영(로 사)	프리빌리지@ 106-1302	601-8475	010-9676-1704
인내의 샘 (‘98.5.6)	단장	안미자(모니카)	프리빌리지@102-2005	287-0739	010-7700-0739
	부단장	김은자(테레사)	성원3차@ 304동 2002호	261-8767	010-5561-8767
	서기	신명숙(엘리사벳)	동성@ 102동 703호	287-9809	010-8569-3889
	회계	송명란(프란체스카)	프리빌리지@105동 302호	261-1927	011-9580-1927
상지의 옥좌 (‘99.10.26)	단장	김완규(요 셉)	성원3차@ 305동 2002호	266-2837	010-6577-5644
	부단장	유재석(미 카 엘)	청솔@ 102동 1405호	287-1469	010-5571-1469
	서기	김정구(프란치스코)	성원3차@302-2004	262-9958	010-4873-9958
	회계	임종선(요 셉)	청솔@ 103동 1804호	261-9950	018-512-9950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99.10.27)	단장	김혜리(헬레나)	황토방@110동1702호	281-3282	010-6686-2234
	부단장	김옥희(루시아)	덕산1차@ 102동 802호	601-7176	010-9282-7176
	서기	김영옥(요안나)	프리빌리지@111-301	285-7834	011-9553-7834
	회계	황윤희(소피아)	유니온빌리지@ 106-601	0	0

호도명 (설립일)	직책	성명(세례명)	주 소	연 락 처	
				자 택	휴 대 폰
애덕의 모후 (‘00.6.8)	단장	이광연(테레사)	대방 성원3차@ 306-2002	267-1413	017-871-7065
	부단장	허미숙(아셀라)	황토방@103동1701호	262-9448	010-2588-9448
	서기	정태영(모니카)	대방 동성@ 103-1506	283-5226	019-9160-8352
	회계	이경해(요세피나)	디지털@ 203-601	281-6360	010-7622-0307
천상의 어머니 (‘00.6.9)	단장	백연옥(테레사)	황토방@ 109동 701호	286-2181	010-9811-2181
	부단장	오한숙(실비아)	대방동 353-1번지	281-7706	016-9662-7706
	서기	박유선(소피아)	안민 청솔@ 107-1102	601-0108	010-7655-0108
	회계	곽선(헬레나)	대방동 353-3번지	261-3742	010-2350-3742
존경하울 그릇 (‘00.10.30)	단장	윤영규(미카엘)	디지털@ 204-1803	264-4307	011-564-8335
	부단장	노인학(가를로)	대동@111동101호	287-1549	011-847-5520
	서기	이성춘(야고보)	남양 성원2차@210-501	602-6505	010-3909-6505
	회계	채도기(레오나르도)	디지털@ 204동 1304호	602-7501	011-575-7501
사랑하울 어머니 (‘00.11.03)	단장	홍경돌(루시아)	유니온@ 113동 504호	283-3028	010-8388-3028
	부단장	임정아(베르타)	대방동성@ 104-506	266-5161	010-5087-5162
	서기	김정은(로사)	프리빌리지103동1901호	263-6819	010-3100-6819
	회계	윤인선(레지나)	프리빌리지 104-802	274-2911	011-9239-2911
창조주의 모후 (02.7.25)	단장	심일철(바울리노)	덕산2차@ 203동 502호	263-1075	010-7280-7783
	부단장	김대형(베네딕도)	유니온@ 115동 302호	261-9164	011-835-6783
	서기	김태욱(베드로)	프리빌리지@ 104-1601	262-2384	011-854-2384
	회계				
예언자의 모후 (‘03.6.20)	단장	전석만(베드로)	프리빌리지105동203호	264-0860	019-572-7525
	부단장	장종권(스테파노)	대방동 덕산상가 111호	311-0389	016-578-2116
	서기	박진출(미카엘)	성원2차@ 202동 605호	284-4452	016-825-7460
	회계	김영규(시몬)	프리빌리지@ 105-1704	286-5630	019-9554-5509
하늘의 문 (‘07.7.13)	단장	조영실(율리아)	대동@ 105동 1501호	283-9714	010-7942-9714
	부단장	배은옥(릴리안)	대동@ 104동 507호	261-8684	019-550-6730
	서기	박지영(안젤라)	대방동 대동@111-1502	267-5613	010-2592-8211
	회계	변은숙(크리스티나)	대방 그린빌@106-1002	264-9179	011-524-6592
로사리오의 모후 (‘08.11.14)	단장	임갑주(알비나)	대방동 342-3번지	282-7389	010-2881-7389
	부단장	강리경(안젤리나)	유니온빌리지 115-1205	281-9208	011-9345-9208
	서기	황소영(레아)	대동 디지털@206-1001	274-1117	011-9393-1985
	회계	김미경(요수아)	유니온빌리지 115-1305	070-7523-2359	-